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웃는 사람 많아지길”

●한보승 광주 동구 총장주민자치위원

10여년째 남구 소아자매원에 매월 1회 소풍·식사 등 제공 올해 동구 ‘집수리 흥반장’ 통해 전기·변기 교체 재능기부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동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이가 있어 지역 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한보승(54) 광주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위원

한 위원은 지난 2021년부터 총장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후배인 김병찬(49)유경경력 이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돌봄 가구를 방문해 화장실 변기, 수도 등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동구 복지서비스 일환인 ‘소소한 집수리 흥반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불편

을 해결하며 총장지역 흥반장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위원은 “집에 수리할 게 있어 사람을 불러 고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직접 수리하기 위해 기술을 배웠다”며 “내가 필요해 배운 기술로 동네 독거 어르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의 재능기부와 봉사는 최근 2-3년 일이 아니다.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전 딸이 다니던 중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딸과 함께 처음으로 남구 소아자매원에서 장애인 봉사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한 위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딸의 봉사 접수가 목표였고, 딸이 졸업하면 그만뒀어야 생각했다”며 “그런데 소아자매원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할수록 행복과 기쁨이 커져 가족



결연까지 맺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웃었다.

한 위원은 매월 한 차례 자원 입소자들에게

소풍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봉사활동에는 한 위원이 봉사를 시작할 당시 같은 이유로 함께 한 7명의 학부모도 동참하고 있다.

한 위원은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봉사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같은 끈끈한 유대감 덕분(?)인지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운영위원장을 6년째 맡고 있다”고 너털웃음을 보였다.

한 위원은 봉사와 재능기부를 하면 행복하고 기쁜 일이 훨씬 많지만,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일부 어르신들이 돈을 받고 하는 행동으로 오해해 험한 말과 하대를 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 위원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밝은 사회가 돼 웃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과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주민과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은 “오는 22일 총장마을 총회가 열린다”며 “많은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해 함께 얘기하고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태호 기자



광양경찰,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

광양경찰서는 “최근 백운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등곳길 캠페인은 백운초등학교 앞 등곳길에서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백운초 학부모회·운영위원회, 새마을교통봉사대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스쿨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또 백운초등학교 전교학생자치회 임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홍보 플래카드와 피켓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수칙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동구 계림1동 새마을부녀회, 열무김치 나눔 봉사

광주 동구 계림1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돌봄 이웃 100세대를 대상으로 ‘정성 가득 열무김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이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 어르신 등 돌봄 이웃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방문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김막례 회장은 “돌봄 이웃들이 시원한 열무김치로 입맛을 찾아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합심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섭현 계림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새마을부녀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더위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태호 기자



전남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우승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 주최로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 분야에서 우승해 응급구조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선수단 등 1천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구형근 소방장 등 4명의 대원은 전문심장소생술과 다수사상 대응전술 2개 종목 합산 점수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해 우승했다. /김재정 기자

특히 대원들은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을 쪼개 구급 훈련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전남소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아 의미를 더했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기술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한 대원들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실이 자랑스럽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조선대병원, 몽골 방문단 팸투어

조선대병원은 “최근 몽골에서 방문한 기관 대표, 의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이 주관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팸투어는 ▲MRI, CT실 방문 및 기기 설명 ▲종합건강검진센터 방문 ▲조선대학교병원 메타버스(메타클리닉) 체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고, 간담회에서 최지은 대외협력실장(이비인후과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선대병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복기 기자

전남서부보훈지청,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호응

전남서부보훈지청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가보훈대상자 중 홀로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은 6·25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홀로 거주하는 유족(배우자)을 찾아가 반려식물을 함께 만들고 식물 관리 요령 안내와 더불어 위문하는 정서 지원 사업으로 관내 7개 시·군 60여 가구에 대해 이달과 7월 까지 이동보훈팀 등을 통해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남서부보훈지청의 ‘고령보훈가족 고독타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경미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GS칼텍스,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 지원 앞장

GS칼텍스가 여수시, 굿네이버스와 함께 미술과 음악 등을 활용한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S칼텍스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정기명 시장, 이기석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장,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 마음톡톡’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GS칼텍스의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부터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아동 심리 정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아동과 부모 7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아동 집단, 아동 개별,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GS칼텍스 여수공장·예술마루 견학도 준비하고 있다.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은 “지난해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결과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자기 표현,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돼 올해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동구, 민선 8기 출범 1주년 점검 보고회

광주 동구는 “최근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약사항 등 역점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간담회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 등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골목 관광을 통한 문화전당권 활성화 ▲주민참여형 인문 축제 상설화 ▲소상공인 핵심포 육성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시행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강화 ▲재능 아동 꿈 키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태호 기자

담양 수북농협, 도시민 모내기·감자 캐기 체험행사

담양 수북농협은 “최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도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모내기와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내기 체험행사에는 이병노 군수, 장명영 군의원, 한연덕 농업유통과장, 정영실 유통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시어린이 모내기 체험 초청 30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모내기를 통해 우리가 먹는 쌀과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해보며 농민들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반기 모심기와 감자를 수확하며 농사를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병노 군수는 “벼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듯 주인의 발걸음을 들고 자란다는 말처럼 이번 체험행사가 농업이 생소한 아이들에게 우



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남근 수북농협장은 “소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선진 로컬 소비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각종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조대부고-AWS ‘AI 에듀테크 지원’ 협약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이하 AWS)코리아는 “최근 서울 AWS코리아 본사에서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AI 에듀테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과 김정수 교장, 윤정원 AWS코리아 대표(공공부문)가 참석했으며 조대부고와 AWS 코리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기술 지원과 AI 에듀테크 개발, 미래 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AWS코리아는 조대부고에 AWS 서비스로 구현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교육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조대부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수업과 학습에 활용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기 기자

결론

▲김용진·김인숙씨 장남 윤중(동명동 한식 돌에 대표인,故박병만·백미량씨 심녀 지향양=7월1일(토) 오전 11시 광주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2(농성동 333-57), (062) 366-7766, 010-3646-9100.

▲정명근·최윤선씨 장남 일형(경기 파주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신도윤·정정옥씨 장녀 유진양=7월1일(토) 오후 5시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세인트그레이스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신도림동 427-3), (02) 2162-2100, 010-4277-5569.